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7호 [루계 제2777호]

주제 112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음력 10월 6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민족사에 특기할 공화국의 11월

공화국의 11월은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달이다. 바로 이달에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운명개척에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지는 기적적성과들이 연이어 이루어졌기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6년전인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공화국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성취하는 민족사적사변을 안아오게 되었다.

그로부터 5년후인 2022년 11월 18일 보다 더 위력하고 전지구권 타격무기인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은 또 한번 만방에 과시되게 되었다.

이것은 제국주의폭제를 끝장내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안아올 주체조선의 절대불변의 의지와 무진막강한 국력, 불가항력적기상이 어떤것인가를, 패권주의가 살판치는 오늘날 진정한 자주강국, 정의로운 국가란 어떤 나라인가를 세계가 더욱 똑똑히 알게 된 역사적사변이었다.

그러면 조선이 어떻게 되어 최상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며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르게 되었는가. 조선의 절대적립, 초강력은 어떻게 마련되게 되었는가.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쓰라!》 이는 지난해 3월 주체조선의 절대적립, 군사적강세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우주만리로 용용히 솟구쳐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시험발사를 명령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새겨주신 친필갈말이다.

사랑하는 인민을 존엄의 최정정에 떠올리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에 가장 빛나는 명예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힘로를 헤치시며 한치 또 한치 승리의 길을 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존엄을 지켜주는것보다 더 큰 애국이 없고 그것을 위한 힘을 키우는것보다 더 힘든 고생이 없다. 홀려온 세월에 천만민민이 우러러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영상은 천만아들딸들을

웃자락에 감싸안아 눈비를 다 막아주시면서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수 없게 억척같이 지켜주시고 자신의 천만로고와 피땀으로 엮은 행복의 금방석에 인민을 앉혀주시는 강의하고 고마운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다. 생명보다 귀중

한것이 민족자존이다. 조국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설사 문힐 땅이 없으면 서서 죽더라도, 말라죽더라도 지켜야 하는것이 존엄이라는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부국강병의 세기적대업실현에 결연히 나서신 불세출의 영웅 김정은장군!

경애하는 그의 자주의 역센

신념과 탁월한 령도, 희생적인 헌신에 의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의 퇴성이 울리고 국가핵무력건설사에 길이 빛날 수 많은 사변들이 연이어 이룩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순간의 답보나 멈춤이 없이 공화국의 절대적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령도하시어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화성포-17》형과 《화성포-18》형을 비롯한 주체조선의 초강력의 실제들을 연이어 마련해주심으로 세계적립 핵강국, 초강국인 공화국의 절대적립을 백방으로 다져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퍼라는 사색과 고려, 강인담대한 결단과 의지

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이 공식법화되고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국가 최고법에 핵무력강화정책이 국가명백백히 규정됨으로써 공화국 인민은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국가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의 전위를 개척한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지난 11월초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는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밑에 세계적립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주제111(2022)년 11월 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려정에서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려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기 위하여 미사일공업절로 할데 대한 뜻깊은 정령이 채택되었다.

110여년전 11월 국력이 약해 대포와 군함을 끌고온 섬나라오랑캐 무리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기고 40여년간 상가질 개신제만도 못한 식민지노예살이를 해야 했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 그 누구도 범접 못할 최강의 국력을 떨치고 11월은 국가의 강대한 힘과 존엄을 상징하며 민족사에 더욱 찬연히 빛나게 되었다.

조선의 절대적립이 마련되고 더욱 억척으로 다져진 11월은 말한다.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강국이 있고 위대한 인민의 존엄과 행복도 있다는것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위대한 공화국의 강대국의 상징이시고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 인민의 운명과 미래이시라고.

본사기자 김철진



미사일총국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 고체연료발동기시험 진행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이 가속되고있는 시기에 미사일공업부문은 또다시 중대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확대회의는 변화되는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안전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전망적인 공화국국방력의 현대화계획을 심의하면서 2023년도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계획중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과 함께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새로운 갱신을 미사일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대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시험은 새로 개발한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들의 기술적특성들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1계단과 2계단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들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되었으며 이미 확보한 우리식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분야의 설계 및 제작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다시한번 뚜렷이 검증되었다.

시험을 통하여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무기체계의 개발을 믿음직하게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은 나라앞에 조성된 엄중하고 불안정한 안전환경과 적들의 군사적공모결탁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될 전망적인 지역의 군사정세에 대비하여 공화국무력의 전략적인 공격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공정으로 된다고 하면서 실행중거리탄도미사일개발사업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검덕지구의 희한한 전변

검덕지구를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용대한 구상이 가슴 벅찬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굴지의 대규모광물생산지에서 또다시 새집들이경사가 님다.

단천시 돈산동과 금산동에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설계된 1400여세대의 단층, 소층, 다층 살림집들이 준비하게 솟아나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살림집입사모임들이 15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김영식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단천시지광업총국, 룡양광산의 일꾼들, 로동자들, 돈산동과 금산동의 주민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몇해전 위험천만한 협곡철길로 검덕지구 피해복구현장을 찾은 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검덕지구를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광산의 전체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이 땅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숭고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 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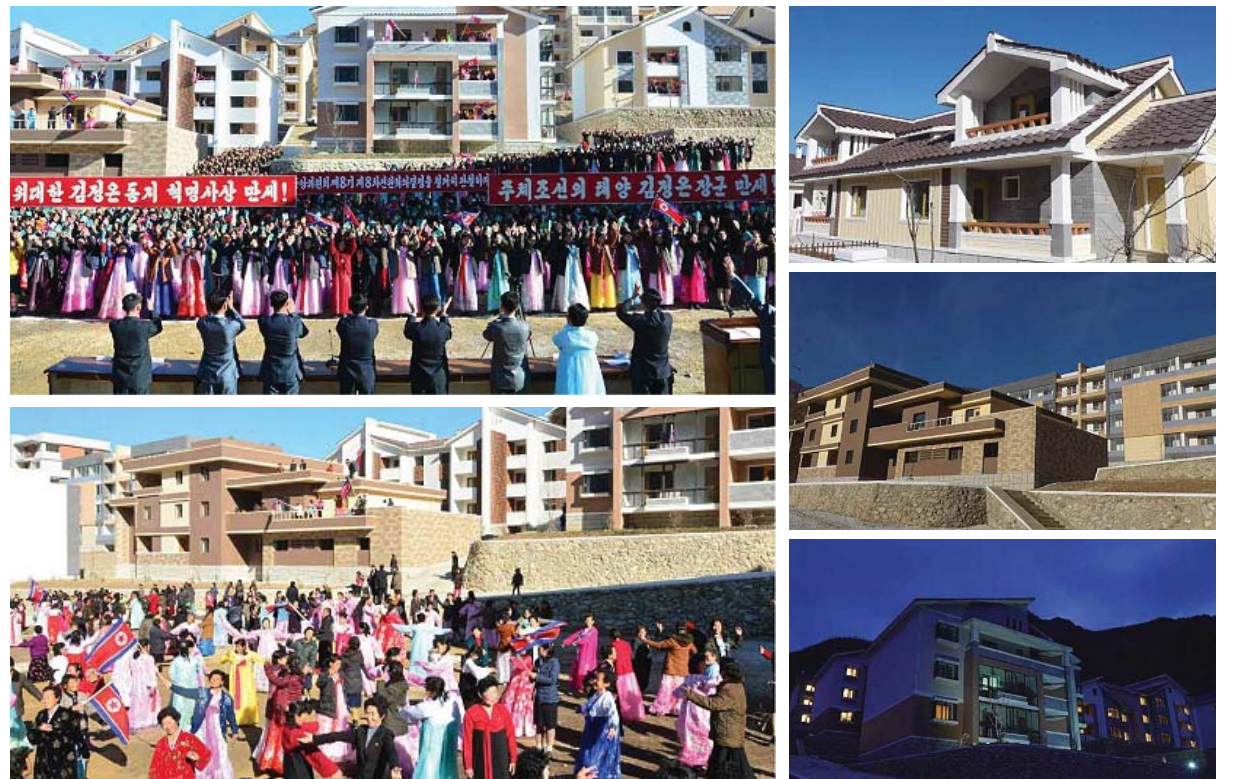
어없는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이 제시한 강령적과업판철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로동계급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광산도시가 들썩하게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집집마다에서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없이 넘쳐났다.

새 보금자리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찾은 일꾼들이 감격에 겨워있는 집주인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본사기자



조선국소식